

백보좌 심판자

“백보좌 심판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백보좌 심판자이지, 사람이 백보좌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백보좌 심판자라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고 마음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숨겨지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너무 밝은 빛인 고로 백보좌 심판자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은 너무나 광명의 빛인 고로 그림자가 없고 그런고로 이제 가리워지는 것이 없고 고로 거기에 막히는 것이 없고 안 보이는 것이 없고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보좌 심판자를 만나는 사람들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되죠, 흠과 티가 있으면 구원과는 상관 없어요” - 2001. 8. 14. 이긴자 말씀

중)에 救世主(구세주가 降臨(강림)하리니) 뇌성벽력에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과 같은 가운데 일차, 이차, 삼차로 지조빛 저녁 노을과도 같고 누런 안개와도 같은 불꽃 가운데 구세주가 강림하리니, “寒心(한심)하다 世上事(세상사)여 死未生(사미생)초(초)시(시)말(말) 생초(초)차(차)로다” 한심하다. 세상이여! 죽음은 끝이 나고 영생이 시작되는 이때로다. “陽來陰退(양래음퇴)선운)에는 白寶座(백보좌)의 神判(신판)이라 非禮勿視(비례물시)비례물칭) 行住坐臥(행주좌와)端正(정정) 하소” 양기의 운은 오고 음기의 운이 물러가는 신선시대가 되는 운에는 백보좌의 심판이라. 예가 아니거든 보지 말고 예가 아니거든 듣지도 말라. 길을 가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단정하소.

勝(궁을)입승) 인생을 추수하는데 지게미 조(槽)자에서 끝에는 쌀 미(米)자를 바람으로 몰아 날려보내라. 또한 지게미 조(槽)자를 바람으로 쫓아내면 무리 조(槽)자의 사람이 선 천 궁(弓)과 후천 을(乙)이 하나 되어 무극(無極)의 십수(十)를 완성한 이기신 십승(十勝) 하나님이다. - 격암유록 寶四一(세41)

구세주 하나님이 백보좌 심판자이다. 격암유록 성운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甘露如雨(감로여우) 寶惠大師(보혜대사) 正道靈(정도령)이 飛出(비출)하야” 감로를 비와 같이 내리시는 보혜대사 정도령이 날아와서, “雷聲霹靂電閃迅(뇌성벽력전침삼신)에 一次二次三次(일차이차재삼차)로 紫霞黃霧火燃(자하황무화연

구세주는 조희성님이신데 그분은 알곡과 쪽정이를 심판한다.

“天下一氣再生身(천하일기재생신) 利見機打破滅魔(이견기타파멸마) 천하의 기운을 한 몸에 하고 다시 태어난 구세주 정도령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마귀를 쳐서 파멸시킨다. “人生秋收糶米端風驅飛(인생추수조미단풍구비) 糟飄風之人(조표풍자인) 弓乙十

- 1985. 5. 27. 이긴자 말씀*

격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69회

천지인 합일의 인존(人尊)하나님이 남조선에 오신다네

格菴歌(격암가사)

雲霧屏風(운무병풍)가리우고
雲梯玉京往來(운제옥경왕래)하니
是曰仙境(은일상경)산성심승인가
先天秘訣(선천비결)심승인가
天藏地秘(천장지비)정도령은
世人(세인)만다알소냐
通和四方(통화사방)박는날의
네생선(네생)이름이냐
要訴人心(요훈인심)사람들이
이길지불부말고
良心(양심)양심친척이아보소
天人同道(천인동도)십인(십인)을
世不知而人不知(세부지인부지리)

구름과 안개가 병풍처럼 드리우고 구름 사다리도 옥황상제가 있다는 하늘나리를 왕래하니 이를 일러 심승의 선경(仙境)이라 하였던가? 선천비결을 지나치게 믿지는 마소. 천지(天地)가 감추고 숨긴 정도령을 세상 사람마다 다 알 수 있겠는가? 온 세상이 통화하는 밝은 날에 정도령이 너의 천한 인생의 이름같이 쉽게 알 수 있는 이름이냐?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길 저길 부주하게 찾지 말고 양심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는 곳을 찾아보소. 하나님과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도를 이룬 목장군(木將軍=十人將)인 정도령을 세상이 모르고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천신(天神)이 내려오심을 사람들은 모르리라.

不信天命誰可生(불신천명수가생)고
逆天者亡(역천자망)이로다
自此以後(自此以後)인(인)부지면
混沌天地火光人間(혼돈천지화광인간)
電火劫術人不見也(전화갑술인불견여)
衆生(중생)을何以濟何以濟(하이제하이제)오

定福此時不定福(정복차시부정복)이언
來年月日何以生(내년월일하이생)고
河圖洛書無弓理(하도낙서무궁리)에
大聖君子(대성군자)나시도다
紫霞山中(자하산중)朝鮮(조선)에
人生於寅(인생어인)나온다네
천명(天命)을 불신(不信)하고서 어느 누가 살 수 있겠는가? 하늘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멸망하느니라. 지금 이후부터 사람들이 천명을 모르고 거역한다면 천지가 혼돈하고 화광(火光)속에서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 마치 번갯불처럼 빠르게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니 사람을 찾아 볼 수가 없게 되리라. 수많은 중생들을 어찌 구제하리오. 영생(구원)하는 복(福)이 정해지는 이때 복(福)을 받지 못하면 오는 세월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도낙서(河圖洛書)의 무궁한 이치 속에서 대성인(大聖人) 군자(君子)가 나오시도다. 자하선경의 남조선 한국에 천지인 합일의 인존(人尊) 하나님으로 나온다네. 천개어자(天開於子) 지벽어축(地開於丑) 인생어인(人生於寅) 즉 하늘은 자(子)에서 열리고 땅은 축(丑)에서 열리며 사람은 인(寅)에서 나오느니라.

天下一氣再生身(천하일기재생신)
仙佛胞胎幾年間(선불포태기년간)에
天道門(천도문)이 열려오고
어화세상(어화)사람들이 아러보고아러보서
남의 농사고만되고
내집농사(내집)농사(농사)지여보세

福(복)바더라부는 노래 四海(사해)가
진동거늘 주(불)고父母(부모)가는
四(사)사람 답답하고不祥(불상)터라
天地合德(천지합덕)부모(부모)님이
無知人間(무지인간)살나지고
天語傳(천어전)이른말을
사람不知(부지)을하니 네죄상이더럽구나
신선(神仙)이신 미륵불이 천하일기로 다시 몸을 나투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가? 이제 천도문(天道門) 즉 불사영생의 문이 열렸으니 어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고 알아보아서 남의 농사(마귀 농사) 그만 짓고 내 집 농사(인류구원의 영생농사)를 지어보세.
복 받으라 부르는 노래가 사해(四海) 즉 온 세상이 진동거늘 천지의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사람 답답하고 불쌍터라. 천지합덕(天地合德)한 부모님이 무지한 인간을 살리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진경(真經=격암유록)에 이른 말을 사람들이 모르고서 욕을 하니 네 죄상(罪狀)이 더럽구나.
天地(천지)가 슬피(합력)하니
愚夫(우부)知(지)도(도)우(우)부(부)지(지)도(도)덕(덕)이요

時來運數(시래운수)시(시)래(래)운(운)수(수)시(시)하니
生死是非吉凶(생사시비길흉)이라
路柳(로류)花(화)노(노)류(류)화(화)적(적)겨(겨)들(들)고
淸風(청풍)明月(명월)그만(그만)놓고
極樂(극락)世界(세계)극(극)락(락)세(세)계(계) 기(기)운(운)임(임)을
世上人間(세상인간)노(노)라(라)보(보)세
天無窮(천무궁)而(而)人(인)心(심)天(천)무(무)궁(궁)인(인)심(심)이(이)요
人無窮(인무궁)而(而)天(천)心(심)人(인)무(무)궁(궁)인(인)심(심)이(이)라
天心(天心)心(심)明(명)天(천)심(심)인(인)명(명)명(명)하(하)니
明(명)天(천)地(지)명(명)天(천)지(지)날(날)과(과)달(달)이(이)
日(일)月(월)天(천)道(도)德(덕)일(일)월(월)천(천)도(도)덕(덕)이(이)네
천지가 힘을 합치니 어리석은 부녀라도 도덕(道德)을 알아오. 세월이 흘러 하늘의 운수가 도래하는 이때에 생사(生死), 시비(是非), 길흉(吉凶)이 판가름 나느니라. 노류장화(路柳花)=창녀나 기생)나 희롱하며 청풍명월(淸風明月)=자연의 풍광)을 즐기며 세월 보내는 일을 그만해야 하는데 천지가 협력하여 내리는 기운이 극락세계가 오고 있음을 말해주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놀아보세 하는구나.
하늘의 무궁함이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무궁함이 하늘의 마음이라. 천심(天心)과 인심이 밝고 밝으니 대명(大明)천지의 해와 달이 천지의 도(道)와 덕(德)을 밝히려로다.* 박명행/고서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생명=영, 나라는 의식=혼”
오늘날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죠? 혼은 무엇이고, 영은 무엇이나? 이걸 분별해서 똑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이나? 영이 생명이예요, 혼이 나라는 의식이예요. 생명(영)을 마귀의 영(혼)이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신과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는 신학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귀의 신은 하늘 공중에 있다고 성경에 쓰여 있죠? 하늘 공중에 마귀 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신은 바로 사람 속에, 이러한 풀꽃 속에, 살아 있는 나무속에도 하나님의 신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을 분별을 못하면, 마귀의 신을 이길 수가 있을까? 못 이겨요. ‘공중 하늘에 마귀의 신이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쓰여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공중 신은 악신이다’라고 쓰여 있어요. 구세주 말씀 중에서



과 동적인 운동 동작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간다.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자연스럽게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물 흐르듯 이루어지는 요가 동작은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아 중장년층에게 훌륭한 건강관리 솔루션이다.

심신 수양, 관절보호, 근력 강화, 성인병 예방~
◎효능: 엉덩이, 다리근육 강화, 자물 신경 균형에 도움.
동작 ①: 하늘을 보고 바르게 누워 양발을 골반 너비로 확장, 무릎을 직각으로 세운다.
동작 ②: 양손은 손바닥을 바닥으로 향하게 해 편안하게 몸통 옆에 둔다. 숨을 마시며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정강이를

참진리 | 생명의 빛 전도 문답 [42]

질문: 인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인간은 영원 영원 전으로부터 영원까지 죽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끝없는 행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안정되게 살던 하나님이 부처님 곧 신(神)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생명이요 빛인데 변하지 않는 안정 상태의 에너지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 전에 하나님의 신이 마귀 신에게 그만 점령되어 저차원의 에너지로 전이되기 시작했고 이때에 빛의 존재가 물질적 존재로 타락하여 남자 여자 인간의 모습으로 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가 죽음을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너지란 그 자체로 생명이요 빛입니다. 에너지의 안정 상태란 중심이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에서는 에너지의 붕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양이 에너지를 지배하게 되면 음과 양의 상호 작용으로 말미암아 에너지의 수준이 점점 낮은 단계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에너지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靈)이며 가장 낮은 수준의 에너지는 사망 그 자체인 고로 현재 이 우주와 인류는 최초의 에너지 붕괴 이후 점점 에너지가 소진되어 가고 있는데 생명의 에너지가 붕괴되어 소멸된 만큼 사망의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영생하는 하나님이었고 빛의 존재가 물질적 존재로 화했다는 증거는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사탕이 달고 불이 뜨겁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이요 빨간 노랑 갖은양념에 참가된 향내가 구수하게 흐르는 비빔밥을 생각만 해도 어느덧 군침이 도는 것은 그것을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죽기를 싫어하고 행복을 동경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이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은 오래전 그것들을 경험한 조상의 피가 우리 인간들 속에 흐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를 보아 과거를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인간을 포함한 만물 속에서 빛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이 원래 빛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로광명이 되는 이슬성신의 빛을 발하는 구세주를 진정한 친구로 삼아 잘 선택해서 늘 가까이 하면 생명의 빛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부재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 수원제단 : (031)236-8465
 - 안성제단 : (031)673-4635
 - 부산제단 : (051)863-6307
 - 영도제단 : (010)6692-7582
 - 김해제단 : (010)7518-9981
 - 대구제단 : (010)6530-7909
 - 마산제단 : (055)241-116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진해제단 : (055)544-7464
 - 영천제단 : (054)6692-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 순천제단 : (010)3661-9025
 - 정읍제단 : (010)8628-2758
 - 군산제단 : (063)461-3491
 - 대전제단 : (042)522-156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橫濱祭壇 : (045)489-9343
 - 神戶祭壇 : (078)862-9522
 - 下關祭壇 : (0832)32-1988
 - 大阪祭壇 : (06)6451-3914
-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